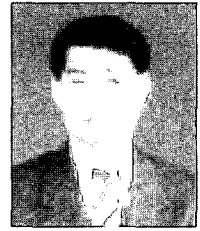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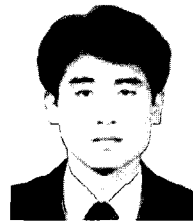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실적 및 효과분석

김 광 용* · 김 배 성**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1. 머리말

우리 농업·농촌은, 선진농업국이 100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구조적 변화를 불과 30여년 만에 겪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농간의 경제성장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형태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공공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그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볼 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기존 투자에 대한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투자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제까지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과분석은 농업생산성 증대와 같은 농업효과 중심으로 편익/비용 또는 수익률을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효과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사업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국가경제적 측면은 물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고하여 이를 소홀히 한다면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활력있는 공간으로 정비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농업부문 투자자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농업 및 비농업부문 등 국민경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미친 효과를 계측·분석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 별도의 농업중심의 거시계량모형을 설정하여, 투자이후와 투자이전의 상황에 대해 1980~2003 동안에 대한 역사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두 상황에 대한 효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특히, URAA이후의 효과비교에 초점을 두어 1992년 이후 결과를 분석·제시하고자 한다.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전개과정 및 추진실적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전후농업용수개발, 4대강유역종합개발 및 농지확대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농지의 질적 개선을 통한 토지생산성의 제고와 개간, 간척 등의 사업을 통하여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를 기하여 왔다.

또한 주식인 미곡의 자급을 위하여 토지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보급과 더불어 관개, 배수 등의 용수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문학적 기술의 개발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다.

지난 50년 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실적을 년대별로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실적

우리나라는 해방과 6.25동란에 의한 국토분단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또한 인구도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심각한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분야에서는 1945년 10월에 「조선농지개발영단」이 발족되었고, 동년 12월에는 「조선수리조합연합회」 기능이 부활되었으며, 1946년 3월에는 토지개량사업이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주로 해방과 함께 중단되었던 일제강점기의 수리시설 설치중심의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기술단체의 재건과 농업용수 중심의 수리사업을 지속하는데 있었으며, 극심한 식량난 해결책과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자재가 우선적으로 배려됨으로써 사업의 재건 및 확대로 추진되었으며 1940~50년대의 전체적인 실적으로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2개 사업을 사업비 8,508백만원('90년 환산가치)을 투자하여 179,997 ha를 개발하였다.

나. 60년대의 실적

60년대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기존질서에 일대 개혁을 이루어진 시기이다. 1961년에 「토지개량사업법」이 제정되어 근대적 토지개량사업체제의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로서 1961년의 「귀농정책사업」,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와 1962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정 및 1964년의 「식량증산 범국민운동」 등을 통하여 종래의 수도작 만을 위한 관개용수사업의 저수지나 보 위주의 농업용수개발이 양수장이나 지하수개발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단식 개간의 강행과 간척이나 경지정리사업의 시도와 목초지 조성 등 발작물을 위한 용수개발도 병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수립과 함께 자원 발굴을 위한 수계별 기본조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개간, 간척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7%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개간사업은 연평균 15,000

ha 이상씩 조성되는 등 농지의 외연적 확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 중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50,872백만원을 투자하여 594,066 ha를 개발하였다.

다. 70년대 실적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고도경제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도·농간, 산업간,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분야에도 외자가 도입되었다.

외자도입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사업의 체계화, 다양화가 이루어 졌으며, 농업·농촌의 발전과 함께 근대화 및 주곡 자급 달성을 이룩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은 농업용수사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그 동안 연속적인 가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제약 때문에 관정, 양수기 등의 소규모 개발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차관도입으로 대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대단위종합개발사업이 도입되어 5대강유역 수계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시기에는 경지정리사업이 정착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공업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토지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투자 시기로 볼 수 있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5개 사업에 사업비 총 613,595백만원을 투자하여 525,953 ha를 개발하였다.

라. 80년대 실적

1980년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확대되는 시기이며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영농규모 확대와 경지의 집약화를 통한 기계화영농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지정리사업이 질적 개선과 함께 양적으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중심사업으로 자리잡게되었다.

특히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연간 사업비가 1,000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89년에는 2,000억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1981년에는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농업용수원개발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1970년대 착공되었던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마무리와 미완공 사업의 완결사업이 전개되었으며, 새로운 간척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영농 대규모화, 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에 집중 투자한 시기로 노동생산성 편중적 사업 투자시기이며 그 실적을 살펴보면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5개 사업을 총사업비 3,118,104백만원을 투자하여 309,215 ha를 개발하였다

마. 90년대와 그 이후 실적

1990년대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업노동력 부족 및 농촌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농경지의 감소, 농산물의 개방, 식량자급률의 저하, 이상기온의 현상 등이 나타나 농업의 총체적 위기를 맞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이루어 졌다.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영농규모화사업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1992년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

투자사업비의 구성비를 보면 생산기반분야 9조 4천억원 중 경지정리사업은 50%인 4조6천억원이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이 30%인 2조8천억원이 계상되었다.

93년7월에는 「신농정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구조 개선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당초 2001년까지에서 '98년까지로 3년 앞당겨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94. 6월 「농어촌발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WTO 대응 농정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6월에는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체계가 재정비되었다. 이를 통해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에 기초사업인 농업·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간척, 매립, 대구획정리사업 및 발기반정비사업외에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기타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90년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3,558,577백만원을 투자하

표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별	계	40년대 후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2003
계	23,993,152	7	8,501	50,872	613,601	3,118,104	13,558,577	6,633,490
농촌용수개발	(31) 7,459,394	(86) 6	(92) 7,848	(54) 27,451	(33) 202,418	(29) 898,502	(28) 3,826,137	(38) 2,497,032
배수개선	(8) 2,005,351	-	-	-	(2) 10,439	(6) 186,419	(7) 926,897	(13) 881,596
경지정리	(35) 8,519,304	-	-	(19) 9,662	(18) 109,166	(31) 969,024	(43) 5,873,589	(23) 1,557,863
대단위종합개발	(11) 2,717,241	-	-	-	(42) 259,158	(28) 863,371	(7) 995,049	(9) 599,663
개간	(1) 53,155	-	(1) 44	(16) 8,269	(4) 23,775	(1) 21,067	-	-
간척	(8) 1,876,030	(14) 1	(7) 609	(11) 5,490	(1) 8,645	(6) 179,721	(8) 1,116,529	(9) 565,035
발기반정비	(6) 1,352,677	-	-	-	-	-	(6) 820,376	(8) 532,301

주: 40~50년대 투자비는 '90년 환산가치임

자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분석 및 효율적인 농촌개발방안 연구(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농림부, 2000-2003)

여 482,628 ha를 개발하였으며, 이중 경지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배양과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집중투자('90~'95 기간중 사업비 투자액 589,220백만원)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여 농업노동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표 1은 주요 사업별로 50년간의 사업투자 내역을 연대별로 종합, 집약한 것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 재해복구사업, 조사사업 등 제외)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주목되는 것은 70년대까지의 사업은 농업용수개발이 주축이었던 것이 80-90년대에는 경지정리사업으로 그 비중이 옮겨졌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의 경우 50년대까지는 사업의 거의 90%를 차지하다가 60년대에는 50%에서 그 후에는 전체 사업의 30%내외를 계속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의 경우 60년대 투자가 시작되어 70~80년대에 투자규모가 계속 증가하였고, 90년대는 URAA를 계기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체 규모의 43%까지 투자하였으나 지금은 1차적인 정비목표가 달성되어 급격히 감소한 상태이며, 화폐가치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연대별 투자규모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많이 투자된 분야는 경지정리로 35%,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31%가 투자 되었으며, 농업용수개발에 대단위종합개발과 간척을 포함할 경우 50%가 농업용수개발에 투자된 셈이다.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효과분석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URAA) 이후 정부의 농업부문 투융자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국고보조)가 농업 및 비농업부문 등 국민경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미친 효과를 계측·분석하고자 일반균형이론에 근거한 농업중심의 거시경제모형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역

사적 시뮬레이션(historical simulation or Ex-post simulation)을 수행하여 농업부문 및 비농업부문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분석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실적 및 효과분석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1조 8,020억원으로 1992년 7,020억원 대비 약 157% 증가하였으나,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차기년도인 1998년, 그리고 2000년과 2002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한 투자실적을 보여 1980~2003년 총 22조 8,240억원이 투자되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 별도의 농업중심의 거시계량모형을 설정하여, 투자이후와 투자이전의 상황에 대해 1980~2003 동안에 대한 역사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두 상황에 대한 효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URAA이후의 효과비교에 초점을 두어 1992년 이후 결과를 분석·제시하였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효과는 농업부문은 물론 비농업부문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계측되었다. 먼저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은 비농업부문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40억원(1995불변기준)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 8,810억원, 2000년 1조 8,810억원, 2003년 2조 2,540억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농업부문 GDP에 미친 영향은 시간에 따라 지속해서 확대되어 온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 효과는 URAA 이후 2003년까지 연평균 2조 3,610억원 이었던 것으로 계측되었다.

사업이 비농업부문 GDP에 미친 효과를 보면, 농업부문 GDP에 미친 영향과는 달리 연도별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투자실적 (1980~2003)

(단위: 10억원)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실 적	143	284	606	1,384	1,796	2,357	2,249	2,289	1,819	1,962	1,819	1,802	22,824
증가분	-	141	322	778	412	561	△108	40	△471	143	△143	△17	-

주: 증가분은 전년대비 증가분을 의미하고, 1985, 1990, 1995년은 5년단위 증가분을 의미함.
 자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농림부, 각 연도)

표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GDP에 미친 효과

(단위: 10억원, 1995기준)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연평균 ('92~'03)
농업GDP 증가분	4	430	881	1,273	1,881	2,254	2,361
비농업GDP 증가분	381	281	514	671	907	543	783
GDP 증가분	385	711	1,394	1,945	2,788	2,798	2,361

(1995년 불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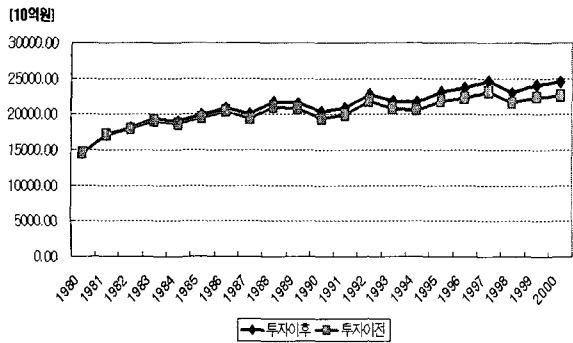


그림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농업부문 GDP에 미친 파급영향

(GDP 증가분의 변화, 1995년 불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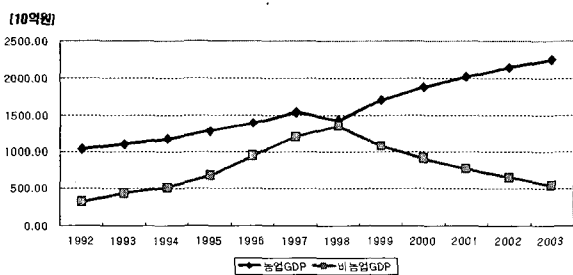


그림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농업 및 비농업부문 GDP에 미친 영향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영향은 IMF 외환위기 발생 차기년도인 1998년을 기점으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에 대한 GDP 증대효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농업부문에 대한 효과는 1980년에 3,810억원 (1995불변기준)에서 1998년 1조 3,520억까지 지속해서 증대하던 GDP 증대효과는 1998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2000년 9,070억원, 2003년 5,430억원에 이른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비사업이 농업부문에 미친 예측된 투자효과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향후 지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1980~2003년까지 그 동안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 상승세 완화에 뚜렷이 기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비사업은 1980년 농산물 농가판매가격을 0.07포인트 하락에 기여하였던 것이 1990년에는 2.47포인트, 2000년에는 무려 약 7.72포인트의 농산물 가격상승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4 생산기반투자가 소비자물가와 농가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가격지수 감소분의 변화)

(단위: 1995=100 지수)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연평균 '92~'03
농판가격	-0.07	-0.96	-2.47	-4.65	-7.72	-7.81	-5.94
CPI	-0.19	-0.26	-0.44	-0.55	-0.76	-0.76	-0.68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소비자물가 상승 완화에 기여한 효과는 농산물 판매가격에 미친 효과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980~2003년 동안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정비사업은 1980년 0.19포인트 물가를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고, 1990년에는 0.44포인트, 2000년에는 0.76포인트 물가상승세 완화에 기여하여, 1992~2003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을 연평균 0.68포인트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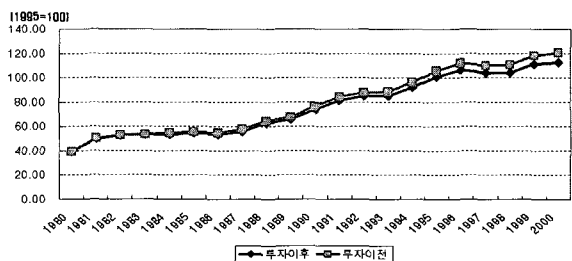


그림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전후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변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농업부문 고용창출 효과가 1980~200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0년 67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던 사업이 1990년에는 257천명, 2000년 321천명, 2003년 391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1992~2003년 연평균 298천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계속되었다.

표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투자에 따른 농업부문 고용창출 효과 (취업자 증가분) (단위: 천명)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연평균 '92~'03
농업취업자	67	276	257	263	321	391	298
증 가 분	-	209	-19	6	58	70	-

주: 증가분은 5년단위 증가분을 의미하나, 2003년은 2000년 대비 증가분을 의미함.

사업이 농업취업자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1988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효과가 이후 1990년 초반까지 다소 증가추이가 감소한 바 있다. 199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 기간 동안 다소 주춤하던 것이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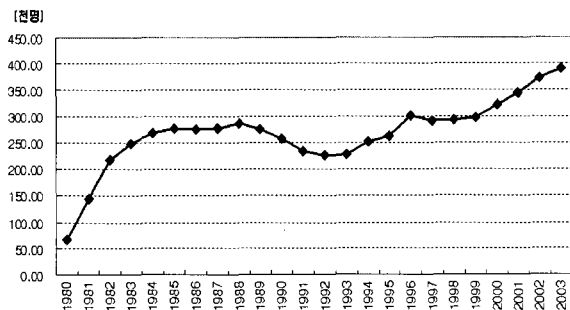


그림 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농업취업자 고용창출효과 (증가분 추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민간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계속해보면 정비사업 실적에 따른 민간소비 지출은 투자이전 대비 1980년 87억원에서 1990년 850억원, 2000년 1,671억원, 2003년 1,921억원의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계속되었다(1992~2003년 평균 1,416억원)

표 6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 (단위: 10억원, 1995불변)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연평균 '92~'03
민간소비지출 증가분	8.7	41.7	85.0	114.9	167.1	192.1	141.6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 투자에 따라 민간 소비지출은 IMF 외환위기 발생 시기에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으나, 1980~200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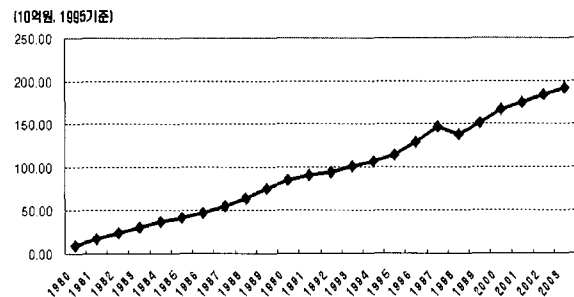


그림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민간소비지출 증대효과 (증가분 추이: 10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소비자 잉여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계속된 것을 보면 1996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소비자잉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계속되었다.

표 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른 소비자 잉여 증대효과 (단위: 10억원, 실질)

구 분	1992	1994	1996	1998	2000	2003	연평균 '92~'03
소비자잉여	95	719	1,355	1,134	619	519	695

주: 소비자잉여는 GDP(경상)를 소비자물가지수(명목)로 디플레이트한 변화분을 소비자물가지수(명목)의 변화분을 곱한 것을 다시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도출함.

URAA 이후의 기간에 대해 투자이전 대비 소비자 잉여 증대효과를 보면, 1992년 950억원의 증대효과를 보이던 것이 1996년 1조 3,550원까지 증대되는 효과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0년에는 6,190억원, 2003년에는 5190억원의 소비자 잉여의 증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계속되었다.

4. 맺음말

본 보고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 별도의 농업중심의 거시계량모형을 설정하여, 투자이후와 투자이전의 상황에 대해 1980~2003 동안에 대한 역사적 시뮬레이션(historical simulation) 결과를 통해 두 상황에 대한 효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URAA이후의 효과비교에 초점을 두어 1992년 이후 결과를 분석·계측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투자효과는 농업부문은 물론 비농업부문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계측되었다.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은 비농업부문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40억원(1995불변기준)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2조 2,540억원의 GDP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비농업부문 GDP에 미친 효과를 보면, 농업부문 GDP에 미친 영향과는 달리 연도별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의 영향은 IMF 외환위기 발생 차기년도인 1998년을 기점으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에 대한 GDP 증대효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농업부문에 대한 효과는 1980년에 3,810억원(1995불변기준)에서 2003년 5,430억원에 이른 것으로 계측되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농업부문에 영향을 준 투자효

과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향후 지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평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사업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 등을 포함해서, 사업에 대한 투자가 농업 및 비농업부문 등 국민경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친 효과 등의 계측을 통해 보다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농업·농촌 및 국토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사업의 기여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뒤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장익근 외9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분석 및 효율적인 농촌개발 방안 연구」.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0.
2. 농림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각 연도.
3. 김용택 외. 「농림투융자의 성과분석 및 향후 투융자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7.
4. 이정환. 「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34. 1993.
5. 이정환 외8인. 「농업부문 장·단기 예측정보시스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98-7. 1998.